



part

04 원자재 및 에탄올시장 동향

2014 World Grain Market



원자재 및 에탄올시장 동향

박환일(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2014년 5월 원자재시장은 그동안의 상승세에 대한 조정으로 다소 하락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나 날씨 관련 이슈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으면서 원자재시장의 하락조정을 초래한 것이다. 원유시장은 리비아, 이라크 등 지역에서의 정치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강보합을 유지했으며, 곡물시장은 우호적인 기후가 전개되어 옥수수 파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약세를 나타냈다. 비철금속 및 금 시장은 지난달에 이어 혼조 또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계절적 수요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며, 미국경제의 회복세는 금시장에 대한 하락요인이다. 4월에 재고증가로 급락했던 에탄올시장은 5월 들어 다시 급등세를 나타냈다. 가솔린 소비가 증가하고 에탄올 수출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에탄올 생산이 늘고 가격도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탄올 생산마진이 양호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에탄올시장의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 원자재시장 동향

■ 원자재지수 월간 동향

2014년 5월 평균 원자재지수는 최근 지속된 강세에 대한 조정으로 다소 하락했다. CRB지수(CRB Index)는 306.8을 기록하여 전월 308.6에 비해 0.6% 하락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6.9% 상승했다. S&P 골드만삭스 상품지수(S&P GSCI)는 652.4로서 전월 653.2보다 0.1% 하락, 전년 동기보다는 4.0% 상승했다.

* hwanilpark@gmail.com, 02-3780-8220

표 1. 원자재지수의 월간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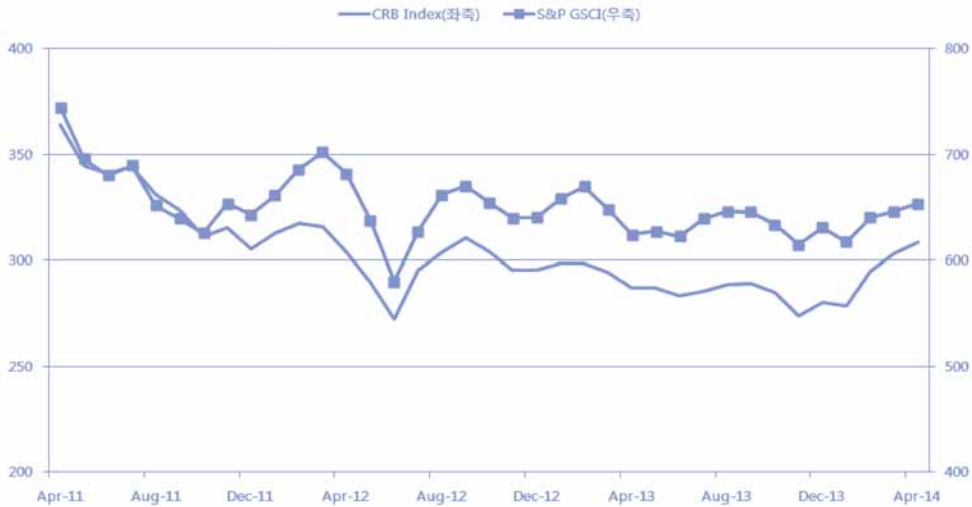
구분	2013.5	2014.4	2014.5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CRB Index	287.1	308.6	306.8	6.9	-0.6
S&P GSCI	627.1	653.2	652.4	4.0	-0.1

주: 변화율은 2014년 5월 평균지수의 전년동기(2013년 5월)와 전월(2014년 4월)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2014년 1월 이후 이어져온 원자재시장의 랠리는 5월에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 다. 4월까지 CRB Index는 10.7%, S&P GSCI는 5.8% 상승했고 주요 저항선이나 의미있는 지수 수준에 접근을 하면서 추가상승 기대감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5월 들어서는 그동안의 원자재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되면서 추가상승보다는 숨고르기 쪽에 무게가 더 실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주요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CRB Index 300이나 S&P GSCI 650은 여전히 지지되고 있는 모습으로 향후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5월 원자재시장은 이전까지 영향을 미쳤던 재료이외에 새로운 변수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4월까지 곡물 및 에너지 시장의 강세를 주도했던 우크라이나 사태나 날씨 관련 이슈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은 채 추가상승보다는 하락조정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재료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품목에 따라 상승 또는 하락을 보이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워 보인다. 4월까지 약세를 나타냈던 미국 달러화는 5월에는 강세로 돌아섰는데 이는 원자재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1. 원자재지수 월간추이



자료: KoreaPDS

■ 주요 품목별 동향: 에너지

2014년 5월의 에너지시장은 뚜렷한 모멘텀 없이 4월의 방향성을 다소 희석시킨 상황이다. WTI원유의 5월 가격은 101.8달러/배럴로서 4월 가격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7.4%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브렌트유는 5월 가격이 109.2달러/배럴로서 전월의 108.1달러/배럴에 비해 1% 높은 상태를 나타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점차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리비아와 이라크에서는 주춤했던 내전 및 단체 간 갈등이 다시 커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중동지역의 리스크가 더욱 커진다면 원유시장 강세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이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원유생산은 5월에도 기록갱신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루 847만배럴을 생산하여 4월말보다 12만 배럴이 증가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분기 중 선진국 원유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4년 세계 원유수요 전망을 9,276만배럴/일로 전월보다 6.5만배럴 상향 발표했다. 원유시장은 향후 강세요인이 다수 존재하지만 강한 상승세를 유도할지 여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상승했던 천연가스 가격은 5월에는 하락하는 모습이다. 5월 가격은 4.5달러/백만Btu로서 전월보다 1.5% 하락했으며, 1년 전보다는 11.5%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4월에 영향을 미쳤던 우크라이나 사태는 다소 진정되는 상황이며, 5월에는 따뜻한 날씨로 인한 가격하락요인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우크라이나,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추이에 대한 반응을 주목해야 한다.

표 2. 에너지 품목별 가격 월간변화 비교

	2013.5	2014.4	2014.5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WTI원유	94.8	102.0	101.8	7.4	-0.2
브렌트유	103.3	108.1	109.2	5.7	1.0
천연가스	4.07	4.61	4.54	11.5	-1.5

주: WTI원유, 브렌트유는 달러/배럴, 천연가스는 달러/백만BTU; 변화율은 2014년 5월 평균가격의 전년동기(2013년 5월)와 전월(2014년 4월)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그림 2. 에너지 품목별 가격 일간추이



자료: KoreaPDS

■ 주요 품목별 동향: 농축산물

4월에 강한 상승을 나타냈던 곡물시장은 5월에는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5월의 옥수수 가격은 489.7센트/부셸로 전월보다 2.5% 하락했으며, 대두는 1,482센트/부셸을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0.5% 하락했다. 옥수수의 가격 하락폭이 큰 상황으로 옥수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5월의 생육우는 137.7센트/파운드로 전월보다 1.4% 상승했다.

표 3. 농축산물 품목별 가격 월간변화 비교

	2013.5	2014.4	2014.5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옥수수	651.5	502.2	489.7	-24.8	-2.5
대두	1,437.9	1,489.2	1,482.1	3.1	-0.5
생육우	120.3	135.8	137.7	14.5	1.4

주: 옥수수, 대두는 센트/부셸, 생육우는 센트/파운드; 변화율은 2014년 5월 평균가격의 전년동기(2013년 5월)와 전월(2014년 4월)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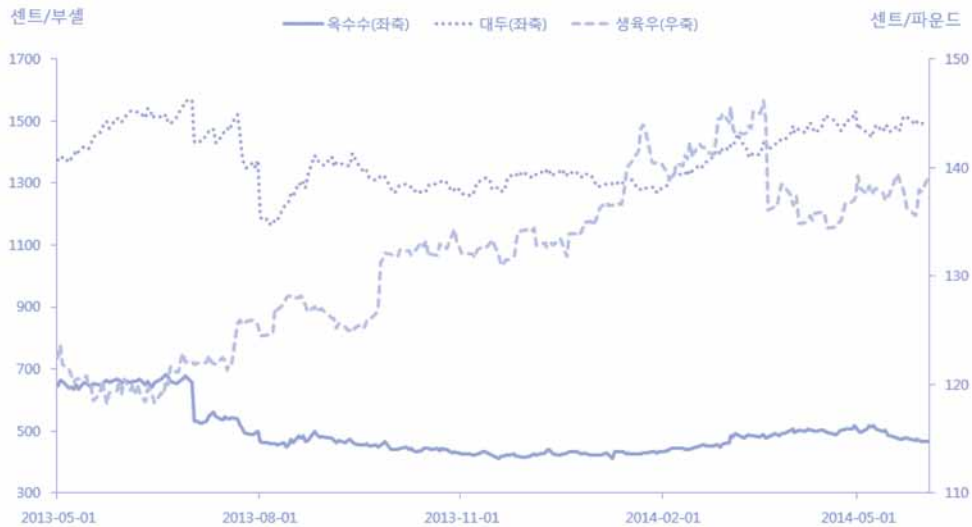
자료: KoreaPDS

곡물시장은 2014년 들어 지속 상승했지만 5월 들어 처음으로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그동안 가격상승을 이끌었던 이슈들이 차츰 해소되면서 옥수수와 대두 가격은 상승세를 멈추었다. 미국 콘벨트 지역의 낮은 기온으로 인해 파종이 느려졌지만 5월에는 기후여건이 개선되면서 파종이 상당량 완료되었다. 5월 25일 기준 옥수수 파종은 88% 진행되었는데 작년 같은 시점의 84%에 비해 진행속도가 빠른 편이다. 또한 남부지역의 건조했던 기후 역시 비가 내리면서 건조문제도 해결되는 양상이다. 이와 같이 파종속도가 진전되고 기후가 우호적으로 변화되면서 곡물 기말재고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 농무부는 13/14년 옥수수 기말재고를 전월보다 6.6% 증가할 것으로 조정했으며, 14/15년 기말재고도 상향조정 발표했다. 하지만 옥수수 가격을 강제로 돌려놓을 수 있는 엘니노 발생 확률도 상향조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후여건에 따라 곡물가격은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4월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생육우시장은 5월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다. 4월에는 차익매물이 나오고 생육우 수급여건이 개선되면서 하락을 나타냈지만, 이후 공급자들의 공급 물량 감소와 여름철 과잉공급 기대가 위축되면서 가격은 다시 강

세로 돌아섰다.

그림 3. 농축산물 품목별 가격 일간추이



자료: KoreaPDS

■ 주요 품목별 동향: 비철금속 및 귀금속

5월의 비철금속시장은 지난 4월에 이어 품목별로 상이한 움직임을 나타내며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구리는 3월에 가격이 크게 하락한 이후 4월에는 보합세를 나타냈는데 5월에는 상승으로 마감했다. 5월 구리가격은 6,746달러/톤을 기록하여 4월에 비해 1.2% 상승했다. 4월에 4% 이상 급등했던 알루미늄은 5월에는 1,915달러/톤을 기록하여 전월보다 2.8% 하락했다. 금 가격은 4월에 이어 5월에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5월 가격은 1,288달러/온스를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0.8% 하락했다.

비철금속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계절적인 수요증가 요인을 기대했지만 중국의 경기부진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부양정책 실시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연 8% 이하를 유지하여 과거에 비해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둔화되고 비철금속 수요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런던거래소의 구리재고는 17만톤으로 2008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구리가격이 강세를 나타냈지만 실물경제 회복에 따른 재고감소보다는 중국 파이낸싱 딜에 따른 재고이동 가능성도 제기가 되었다.

금 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되고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5월 미국 제조업 PMI는 53.2를 기록하여 전월에 이어 경기 확장세를 유지했으며 내구재 주문, 소비자신뢰지수 등이 상승하는 등 견실한 경기 회복 상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 달러화의 강세와 함께 경기회복추세는 금시장에 대한 가격하락 압력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표 4. 비철금속 및 귀금속 품목별 가격 월간변화 비교

	2013.5	2014.4	2014.5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알루미늄	1,993	1,971	1,915	-3.9	-2.8
구리	7,372	6,667	6,746	-8.5	1.2
금	1,417	1,299	1,288	-9.1	-0.8

주: 알루미늄, 구리는 달러/톤, 금은 달러/온스; 변화율은 2014년 5월 평균가격의 전년동기(2013년 5월)와 전월(2014년 4월) 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그림 4. 비철금속 및 귀금속 품목별 가격 일간추이



주: 알루미늄, 구리는 달러/톤, 금은 달러/온스

자료: KoreaPDS

2. 에탄올시장 동향

■ 소비세 증가의 청신호

미국 에탄올시장은 2014년 4월의 급락에서 벗어나 5월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5월 마지막 주 가격은 235.5센트/갤런으로 4주 전 대비 9.3% 상승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7.4% 하락한 상태이다.

표 5. 에탄올 주간 평균가격변화 비교

	2013.5.27	2014.4.28	2014.5.26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에탄올	254.2	215.5	235.5	-7.4	9.3

주: 에탄올은 센트/갤런; 변화율은 2014년 5월 마지막 주 평균가격의 전년동기(2013년 5월 마지막 주)와 전월(2014년 4월 마지막 주)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5월 에탄올시장이 다시 강세로 돌아선 배경은 수요증가에 기인한다. 지난 4월 에탄올 가격 급락은 생산량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요량으로 인해 에탄올 재고가 증가한 것이었다. 하지만 5월에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가솔린 소비가 증가하면서 에탄올 소비도 같이 확대되었다. 지난 4월 마지막 주의 에탄올 생산량은 하루 89만배럴을 기록했으나 5월 들어 90만배럴 이상으로 증가했다. 5월 마지막 주의 생산량은 93.8만배럴까지 늘어나면서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가솔린 소비량은 4월까지만 해도 하루 900만배럴 이하였으나 5월 9일 이후 900만배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5월 23일 가솔린 소비량은 931만배럴을 기록하면서 2013년 7월의 930만배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향후 에탄올시장은 다가오는 드라이빙 시즌에 가솔린 소비량이 어느 정도 증가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옥수수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에탄올 가격은 강세를 유지하면서 에탄올 생산업자의 마진이 개선되고 있다. 따라서 가솔린 수요에 따라 에탄올 생산량이 더욱 증가하여 에탄올 생산마진이 유지되는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솔린 수요 증가에 따른 에탄올의 내수 소비 증가 이외에 최근 에탄올 수출물량이 늘면서 에탄올 생산활동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즉 가솔린 소비와 에탄올 수출에 따른 에탄올 및 옥수수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미국 에탄올 생산 및 옥수수 소비량 추이

주간	에탄올 생산량 (천 배럴/일)	에탄올 재고량 (백만 배럴)	가솔린 소비량 (천 배럴/일)	옥수수 소비량 (백만 부셀)
2014/2/28	894	16.6	8,411	13.56
2014/3/28	922	15.9	8,713	13.98
2014/4/25	898	17.1	8,693	13.62
2014/5/9	922	17.3	9,191	13.98
2014/5/16	925	17.0	9,174	14.03
2014/5/23	927	17.5	9,310	14.06
2014/5/30	938	18.3	9,104	14.22

자료: Renewable Fuels Association

그림 5. 미국 CME 에탄올 주간가격 추이



자료: KoreaPDS

그림 6. 미국 월별 에탄올 수급 및 재고량 추이



자료: Renewable Fuels Association